

# “전북형 맞춤형 복지 제공할 것”

### 6·13 지방선거... 송하진 도지사 후보, 10개 복지 공약 제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빈곤층 생활보장·영유아 정밀검진 등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가 7일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송하진 전복지사 후보는 이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전북을 꿈꿉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 관련 공약을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이른바 '전북형 맞춤형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며 10개의 세부실천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탈락자 빈곤층 생활보장제 추진 ▲우리아이 영유아 정밀검진 건강관리 책임제 추진 ▲사회적 가치활동 연계 청년기능수당 신설 ▲일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워라밸 문화 확산 및 이주민 서비스 확대 ▲빈곤아동 교육올타리 지원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개설 등이다.

또 반려동물 교육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회적 약자 행복정책 개발팀 운영,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하진 후보는 “국민건강보험제도만으로는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요구에 맞는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장애인과 청년, 반려동물까지 도민들의 복지를 책임져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사천투표를 앞두고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7일 전주시 호지동 전리북도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청직원들과 선거관리 위원회 관계자들이 실수 없는 투표를 위해 관련 기구들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 수요맞춤형 드론 마케팅 지원사업 공모

### 전북도, 오늘부터 22일까지

전북도는 도내 드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8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에 따라 지난 5월 공모 선정된 우수 R&D 및 제품개발 지원사업(총 5개사, 3억 2,500만 원)에 이어,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2018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사업은 드론 생태계를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제품경쟁력을 강화해 공공부문 수요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드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행기관으

로 선정된 캠프종합기술원이 주관한다. 전북도는 2017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 7개사(연구개발 지원2개사,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 5개사) 드론기업을 지원, 매출 약 10억원과 5명 신규 고용 창출 등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이번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는 분야별 총 11개 기업을 선정하여 총 1억 7,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수 R&D 및 제품개발지원 부문 기업 추가 선정(1개사, 6500만원)을 위한 재공고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기업 지원분야를 세분화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으로 도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사업은 8일부터 22일까지 공모가 진행되며, 참여희망 기업은 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갖추어 캠프종합기술원으로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 기업(스타트업, 창업기업 포함)으로 우수한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드론기업 및 유사 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주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 하현수 신임 전국상인연합회장 당선

### 호남 출신 최초로

하현수(58) 전북상인연합회장이자 전주남부시장상인회장이 지난 4일 전국상인연합회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전국상인연합회장에 당선됐다.

호남 출신이 전국상인연합회장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 신임회장은 전통시장 지원 관



제시로 회원들의 마음으로 열려졌다.

련 중소벤처기업부 상위 정책화, 전통시장 내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제해결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하 신임회장은 전주 남부시장을 전국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게 한 장본인으로 전통시장 운영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전국의 전통시장이 관광형시장으로 탈바꿈하는데 모델이 되었다.

전국 최초로 남부시장에 아시안과 청년몰을 개장에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선보이며 젊은이들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전통시장에 젊은이들이 북적거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김진성 기자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기초단체장 후보자 동향

### “물타기식 여론 유도 중단을”

#### 서거석 교육감 후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는 7일 “김승환 후보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식 여론 유도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거석 후보는 자료를 내고, 최근 김승환 후보측이 제기한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했다.

서 후보는 “전북대 총장 시절 업적 중 하나인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립대 1위(평판도 제외)' 등극에 관한 내용을 공보물에 실었다"며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선관위에 허위사실 여부를 묻는 의외제기를 하고, 이런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보물에 적시한 2013년도 대학간 비교 지표에서 전북대는 평판도를 제외한 점수에서 139.94점으로 131.93점을 받은 부산대를 누르고 국립대 1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뉴시스



### “삼성 취업 막았다? 본질 왜곡”

#### 김승환 교육감 후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는 7일 자료를 통해 “교육감이 삼성 취업을 막았다는 주장은 본질을 왜곡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삼성이란 기업 전체를 짚어서 학생들을 취업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유해물질로 안전자들이 다수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이라고 명시했다"며 "당시 언론들이 '삼성전자에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식으로 보도했고, 이를 선거 국면에서 상대 후보들이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능한 많이 취직시키고,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건 당연하다"며 “그러나 학생들이 취업하는 업종이 생명·신체·건강에 위협이 없는지, 안전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공천배제? 이유 있었다”

####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는 “6.13 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전에서 한 후보가 진실을 왜곡한 채 동정심을 유발하며 유권자를 속인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지난 6일 지역위원회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학수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숨긴 채 역olum한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학수 후보가 역olum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난 설명절 자신과 관계된 사업체가 민주당 당원들에게 사물선물세트 120개를 제공하던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의 공천배제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이 시간 때문에 당사 후보라도 시장직 유지가 어렵다고 본 결정이었었고 권한을 가진 당 최고위가 책임공천제를 염두에 두고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 지역선거 최초 촛불유세

####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학수 후보(무소속)의 선거대책위원회인 '시민캠프'가 정읍선거 역사상 최초로 촛불유세를 시도했다.

수성동 명동의류 부근 약 50m가 촛불인파로 가득 찼다.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함께 했고, 외국인도 동참해 정치불신과 과열된 선거전에서 벗어나 선거를 축제로 승화시킨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6일, 저녁 7시 30분부터 한시간 반 가량 진행된 촛불유세는 매우 감동했는지 사회를 맡아 지지자들과 호흡을 맞췄다.

이 후보는 “정읍의 '붉은 소나무'로 살아왔지만 우물안의 개구리가 아니다”라며 “지난 8년간의 도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정읍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 “새만금 개발 김제발전 기회”

#### 박준배 김제시장 후보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7일을 기준으로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을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준배 김제시장 후보는 차별화 된 정책으로 유권자 표심 굳이기에 들어갔다.

박 후보는 시내권과 읍면동 지역 유세현장 돌며 “새만금 개발은 김제발전과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새만금 전문가인 박준배가 김제발전에 밀알이 되었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김제가 새만금 개발에 따른 세계적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공사 유치 신청 ▲국제경제협력단지 100만평 규모 4차 산업 도시 개발 단계적 추진 ▲새만금 포럼 개최 준비 ▲공영개발단 설립 ▲2030 새만금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혁명을 만들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제=곽도태 기자



### “어르신 행복카드 제도 도입”

####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가 7일 무주군 지역내 어르신들을 으뜸으로 모시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의 정책선거를 주도하고 있다.

황인홍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르신을 공경하는 도시형 농촌과 효(孝)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무주 건설을 위하여 어르신 행복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홍 후보는 “군에서 발급한 어르신 행복카드를 지역 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군내버스 탑승 시 카드만 대면 자유롭게 지역을 어디든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목욕탕과 수영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후보는 어르신 공약으로 ▲겨울철 3개월과 영농철 한달간 경로당 식비지원 ▲전용화관 건립 등을 약속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제”

#### 이영숙 장수군수 후보

이영숙 장수군수 후보는 7일 공공부문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제 대신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으로 생존은 가능하지만 삶은 어렵다는 말처럼 실질적인 물가와 고려하면 아직은 '최저 생활'의 가이드라인 뿐이다”며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장수에서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장수군 근로자가 일을 해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로 장수에서 생활이 가능한 수 있는 임금수준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수에서 최저임금은 주로 젊은 층에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시로 향하는 젊은 층을 지역에 거주하도록 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구체화

#### 김창수 장수군수 후보

김창수 장수군수 후보(기호 8번, 무소속)가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활성화 지원사업을 구체화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소통과 경청 투어를 통해서 마련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 공약'을 더 다듬은 것이다.

김창수 후보는 “장수군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왔다”면서 주요 5대 공약을 발표한 배경을 밝혔다.

김창수 후보는 주요 5대 공약으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전담 기구 설치 ▲중소상공인 단체 등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시설개선자금 장기대출 융자지원제 ▲청년창업지원제도 ▲장수비즈니스이카데미 개설 등을 내세웠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 세대 아우르는 복지망 구축”

#### 박우정 고창군수 후보

6·13 지방선거 더불어 민주당 박우정 전북 고창군수 후보가 7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복지도시 고창”을 목표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고창을 석정단지 인근에 은퇴자와 귀촌인들의 입주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민선 7기에는 고창을 찾는 시니어들을 위한 웰에이징 복지타운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공약으로 ▲어린이 안전보험 가입 추진 ▲보육시설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 확대 ▲창의력 일거우는 세대공감 군립도서관 건립 ▲초등생 방과 후 스포츠 전일 학습 지원 ▲초·중생 수학여행비 지원 ▲노인 공동 홈 확대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회귀병·난치병 의료비 지원 확대 ▲웰에이징 복지타운 기반구축 등을 발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잼버리 개최지 유치 노력 별개”

####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는 7일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의 부안 개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며 “제가 군수에 당선되면 잼버리대회의 성공개최는 물론 대회 준비를 위한 사회간접 자본 투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 후보는 “무소속 김중규 후보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안군이 잼버리대회를 유치했다'는 것은 개최(신청) 지역과 유치 노력을 혼동시키는 발언”이라며 “잼버리대회 유치는 폴란드와 최종 경쟁할 때 전북도, 스키우트 연맹, 정부(여가부가 노력한 결과”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후보 캠프관계자는 “권후보가 TV토론 등에서 밝혔듯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부안군은 개최지역 신청을 협조할 것뿐이지만, 부안군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